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우울성향 및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Depressive Dispositions,
and Depression on the Self Esteem of Adolescents*

이은경(Eun Gyoung Lee)¹⁾

박성연(Seong Yeon Park)²⁾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develop a structural model, of which the effect of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depressive dispositions, and depression upon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The participants were 458 adolescents recruited from high schools and universities (*M age* = 17.4 yrs; *SD* = 1.75) in Seoul and its vicinity.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elf-reporting questionnaires for adolescents. Firstly, we estimated the hypothesized mediation model which includes paths from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to self-esteem through adolescents' depressive experiences and depressi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using AMOS revealed that the hypothesized mediation model yielded an acceptable model fit and all hypothesized path coefficients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Specifically, it indicated that the more parents try to exert psychological control over their children, the more depressive experiences adolescents have and in turn, they had a greater tendency towards becoming depressed and having lower self esteem. It was also found that neither gender difference nor age difference existed in the structural model.

Key Words : 심리적 통제(psychological control), 우울성향(depressive disposition), 우울(depression), 자아존중감(self-esteem).

* 본 논문은 2009년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¹⁾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 박사

²⁾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Seong Yeon Park, Dept. of Child Development, College of Social Sciences Ewha Womans University, 11-1 Daehyun-dong, Seodaemun-gu, Seoul 120-750 Korea
E-mail : psy@ewha.ac.kr

I. 서 론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진입하는 이행적 발달단계로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면서 부모로부터 보다 독립적이 되어가고, 삶의 목표나 가치관, 자신에게 맞는 직업, 성역할 및 종교적 또는 철학적 이념을 찾아내야 하는 도전적인 과업들에 직면하게 되는 시기이다(Erikson, 1968).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기는 동양의 집단주의(collectivism)의 영향과 더불어 학업으로 인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가중되는 시기로,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욕구와 여전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욕구사이에서 청소년들은 상당한 갈등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심지어 후기 청소년기인 대학생이 되고나서도 자녀의 주의를 떠나지 못하고 항상 맴돌면서 자녀의 개인생활까지 사사건건 개입하는 소위 ‘헬리콥터형’ 부모들(helicopter parents)이 많아, 청소년들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은 보편적으로 확산되고 있다(연합뉴스, 2007. 10. 8). 이러한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청소년기는 20대까지로 지연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고등학교 시기뿐만 아니라 대학생이 되어도 진정으로 자신의 가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며, 나아가 자기비하로 인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자아존중감을 조사한 통계자료(김순홍, 2007)에서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나는 때때로 나는 안돼 라고 생각한다’ 등의 문항에 청소년들의 약 50%가 응답하였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이 상당히 낮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고양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자

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그 경로를 탐색하고자 한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능력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믿는 정도로 정의되고 있으며(Coopersmith, 1976), 이에 따라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감과 유능감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념화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자기 자신과 타인을 수용할 줄 알고 자신의 능력을 인식하고 그 한계를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사회적 관계에서 안정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안다.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의존적이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위축행동이 높으며, 타인의 태도나 행동에 민감한 경향이 있다(김소연, 2008; Mruk, 2006; Trzesniewski, Donnellan, Moffitt, Robins, Poulton, & Caspi 2006). 이와 같이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적응과 건강한 성격발달에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들은 자아존중감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아동의 적응이나 발달과의 관련성을 파악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일부 연구들에서 자아존중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이를 예측하는 변인들을 다루고 있다.

자아존중감을 예측하는 변인으로는 주로 양육행동이 강조되어 왔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부모의 애정적이고 합리적인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김연희·박경자, 2001; 김원경·권희경·전제아, 2001), 거부적이고 강압적인 양육행동은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DeHart, Pelham, & Tennen, 2006; Milevsky, Schlechter, Netter, & Keehn, 2007). 그러나 특정 양육행동이 항상 동일하게 긍정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

나라 발달시기나 발달영역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특히 청소년의 독립성 발달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부모의 심리적 통제(박성연 · 이은경 · 송주현 · Soenens, 2008)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부모가 기대하는 행동을 자녀가 행하지 않을 때, 부모가 자녀에 대한 애정을 철회하고, 자녀로 하여금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등의 심리적 수단을 이용하며, 자녀의 사고, 자기표현, 감정, 부모에 대한 애착 등에 지나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녀를 심리적으로 조정하려는 행동이다(Barber, 1996; 2002; Soenens & Vansteenkiste, 2007). 최근에 Soenens, Vansteenkiste, Duriez와Goossens(2006)는 ‘심리적 통제’를 단일차원으로 보는 대신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적’ 심리적 통제의 두 가지 구별되는 구성요소를 제안한 바 있다.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란 부모에게 벗어나 독립적인 행동을 하고자 하는 자녀에 대해 부모가 불안울 느끼게 됨에 따라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양육행동이다. 반면에 성취지향적 심리적 통제는 성취지향적인 태도나 실패를 두려워하는 성향 및 완벽주의적인 성향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부모들은 자녀에게 높은 성취수준을 기대하고 자녀의 성취정도가 자신이 설정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 간섭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박성연 등, 2008; Soenens & Vansteenkiste, 2007).

특히 과보호하는 부모,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부모, 성취를 강조하는 부모, 완벽주의 경향이 있는 부모들이 심리적 통제를 많이 한다는 점(Barber, 2002; Blatt, 2004)에서 볼 때, 자식과의 분리불안이나 자식에 대한 성취 기대가 높은 우리나라 부모들은 심리적 통제를 많이 나타낼 것으로 가정된다. 더욱이 개인주의가 강한 서구 사회와 달리, 우리나라와 같이 부모에 대한 효

(孝)를 강조하고 집단주의적 사고가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보다 보편적이기 때문에(Oyserman, Coon, & Kimmelmeier, 2002) 이로 인해 청소년이 받게 되는 부정적인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즉,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높은 교육열로 인해 청소년기에도 자녀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자녀가 추구하는 독립성을 부모로부터 이탈이나 분리로 받아들여 지나치게 애착을 강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많이 받는 청소년들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서구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의 불안이나 우울 등 정서적 문제와 악물남용이나 일탈행동 등 문제행동과 정적인 관련이 있으며(Barber & Harmon, 2002; Stolz, Baber, & Olsen, 2005),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에도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의 우울성향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박성연 등, 2008). 우울성향은 개인의 발달과정 중 여러 가지 우울한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우울에 취약한 성격유형으로(Zuroff, Moskowitz, Wielgus, Powers, & Franko 1983) 의존적 우울성향과 자아 비난적 우울성향으로 분류된다(Blatt, D’Afflitti, & Quinlan, 1976). 의존적 우울성향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매달리며 돌봄을 받고자 갈망하기 때문에 의존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고통스러워한다. 이와는 달리 자아 비난적 우울성향의 사람들은 내적 기준이 높고, 엄격한 잣대로 자신을 평가하기 때문에 항상 불인정이나 비난을 두려워하는 한편, 자기에게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못 받을까봐 걱정한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성취지향에서 비롯된 것인지 분리불안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따라 청소년이 각기 자아 비난적 우울성향이나 의존

적 우울성향을 갖게 된다는 보고도 있다(박성연 등, 2008; Soenens et al., 2006; 2007). 그러나 학자들은 두 가지 우울성향 모두 통제적이고 간섭적이며 비난적인 행동을 특징으로 하는 심리적 통제에 기인한다는 데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Blatt, 1974; Hokanson & Butler, 1992; Welkowitz, Lish, & Bond, 1985). 결국, 청소년의 우울성향이란 우울한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성격특성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독립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우울성향을 형성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우울한 성향을 세분화하여 살펴볼 때, 부모의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가 심할수록 청소년의 의존적 우울성향과 자아 비난적 우울성향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나아가 우울성향은 우울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아동의 자기표현(self-expression)을 침해하며(Barber, 1996), 조건적인 애정이나 수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녀에게 의존성을 특징으로 하는 우울성향을 갖게 함으로써 우울로 인한 문제를 겪게 한다. 최근 국내 한 연구에서도 자아비난적 우울성향 집단에서 자책감이나 무력감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울성향의 성격특성이 우울정도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였다(손보영·정남운, 2006). 같은 맥락에서 부모의 과도한 기준설정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실패경험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실패경험은 자아비난이라는 고통과 더해져 우울을 유발하기도 한다(Kanfer & Hagerman, 1981).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내재화문제 간의 관련성을 실험한 연구들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우울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Barber, 1996; Barber, Olsen, Shagle, 1994; Bean, Barber, & Crane, 2006). 이러한 연구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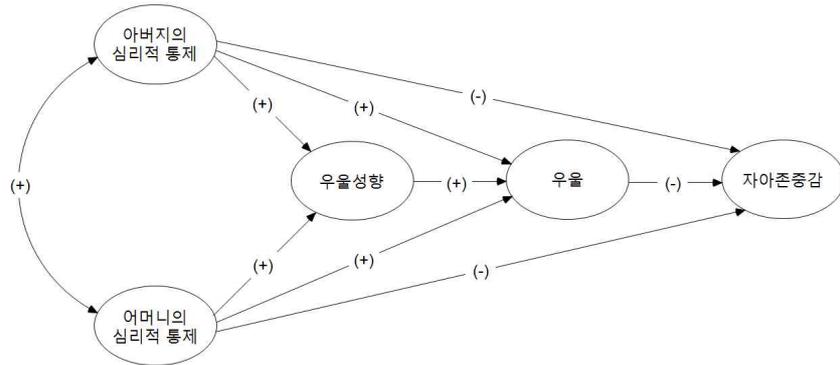
심리적 통제가 우울성향을 통해 우울이라는 정서적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우울은 자아존중감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우울증이 심하고 부정적인 정서상태를 자주 보이는 반면(Beck, 1976; Rosenberg, 1986),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감과 인내력이 있고 대인관계능력이 높으며 우울정도가 낮았다(Kernis, Grannemann, & Mathis, 1991). 또한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사소한 비난이나 평가에 대해 쉽게 우울감이나 의욕저하 및 무력감을 경험한다(Fray & Carlock, 1989). 이외에도 Harter와 Whitesell(1996)은 우울한 기분과 자기 가치 사이에 높은 부적 상관을 발견하였으며, Lewinsohn과 Gotlib, Seeley(1997)의 종단연구에서도 우울은 낮은 자긍심의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인지이론가들 또한 비합리적으로 높게 설정된 기준이 좌절감이나 자신감의 부족, 의심, 불만족 및 무기력으로 청소년을 우울하게 하며 나아가 낮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한다고 보고한바 있다(Burn, 1980; Hewitt & Dyck, 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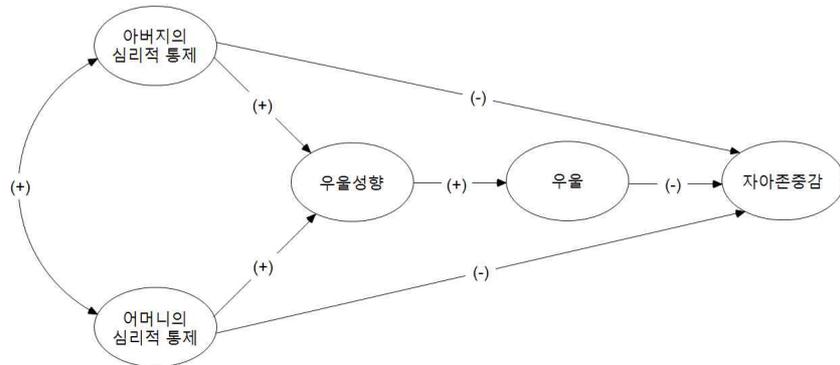
위에서 살펴본 바와 우울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상관관계에 기초하고 있으며, 우울과 낮은 자아존중감 중 어느 것이 더 선행하는가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다른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 인과관계가 양방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일부 청소년들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경험할 때 우울해지는 반면, 다른 청소년들은 거부나 갈등과 같은 다른 사건들로 우울해지고, 그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Charles & Patricia, 2006)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로 인해 아동은 성격적으로 우울한 성향을 갖게 되고 이러한 우울성향이 우울로 이어진다는 박성연 등

(2008)의 모델을 근거로 우울을 자아존중감의 선행변인으로 설정하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청소년의 우울성향, 우울, 자아존중감 간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이론모형을 검증하고자 한다. 선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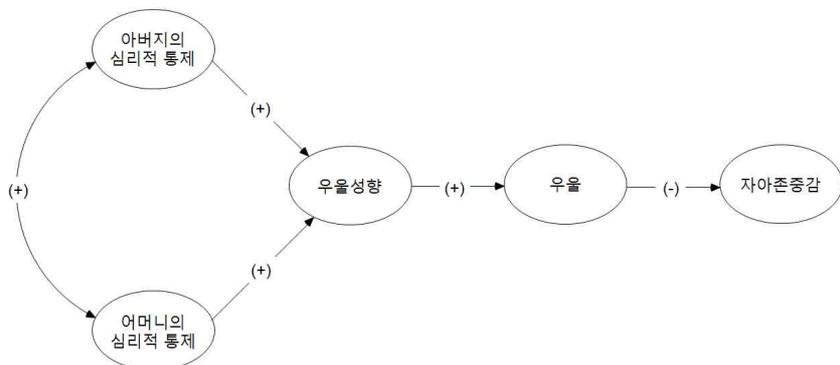
연구 고찰을 토대로, 이론모형으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우울성향 및 우울,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우울성향과 우울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아존중감에 영



<그림 1> 이론모형



<그림 2> 대안모형 1 : 부분매개 모형



<그림 3> 대안모형 2 : 완전매개 모형

향을 미치는 직·간접적 경로를 가정하였으며 (그림 1), 대안모형으로는 <그림 2>와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은 부분매개 모형과 완전매개 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청소년의 우울성향, 우울과 자아존중감 간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청소년의 우울성향 및 우울, 자아존중감 간의 구조적 관계는 교차타당성이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수도권 거주하는 청소년 중기에 속하는 인문계 고등학생 1, 2 학년과 대학생 1, 2학년 총 458명(남학생 : 216명, 여학생 : 242명)을 대상으로 임의표집 하였다. 연구대상 청소년의 평균연령은 17.41($SD= 1.75$)세이며, 연구대상 청소년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각각 48.72($SD = 3.83$)세와 46.00($SD = 3.72$)세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의 경제적 수준은 중상(18.1%)과 중(65.7%)에 많은 분포를 보여, 본 연구대상 가정은 대체로 중산층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를 위해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청소년의 우울성향 및 우울,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모두 청소년의 자기보고로 측정하였다. 모든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하는 각 요인의 특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1) 부모의 심리적 통제척도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대한 질문지는 Soenens 와 Vansteenkiste(2007)가 개발한 Domain-specific Assessment of Psychological Control(DAPC)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박성연과 이은경(2009)에 의해 타당화 절차를 거친 것으로 부모의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10문항)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10문항) 두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의 문항 예로는 '내가 아버지(어머니)와 다른 의견을 가지면, 어머니는 나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신다'를,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의 문항 예로는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높은 기대치를 달성하려고 애쓸 때 나를 더 인정해주신다'를 들 수 있다. 각 문항들은 5점 척도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청소년에게 대하는 행동에 관해 각각 그 일치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범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로 측정된 척도의 신뢰도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가 각각 Cronbach $\alpha = .88, .86$ 이었으며,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각각 $\alpha = .92, .90$ 이다.

2) 청소년의 우울성향

청소년의 우울성향은 Blatt 등(1976)이 우울과 관련된 성격적 특성으로 정의될 수 있는 주관적인 경험에 관한 150개의 문항과 임상적 문헌에 기초하여 총 66문항으로 개발한 Depressive Experiences Questionnaire-Adolescent Version (DEQ-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청소년 스스로 자신을 묘사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7점)까지 7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졌다. Blatt 등(1976)은 우울성향을 '의존성' '자아비난' '효능감'의 세 가지 하위요인을 추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 관련된 두 요인인 자아비난과 의존성만

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박성연 등, 2008; Blatt, & Homann, 1992; Soenens & Vansteenkiste, 2007).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의존성(24문항)과 자아비난(8문항) 요인의 문항내적 일치도 각각 Chronbach $\alpha = .85$ 와 $\alpha = .70$ 이었다.

3) 청소년의 우울

청소년의 우울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Radloff (1977)의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을 사용하였다. CES-D는 모두 20문항으로 각각의 문항에 대해 일주일 동안 일어난 빈도를 측정하여 ‘거의 없었음(0점)’에서부터 ‘대부분 그랬음(3점)’까지 Likert 4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Radloff(1977)의 연구에서는 우울한 감정, 긍정적 감정, 신체 및 행동 둔화, 대인관계의 4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나 국내에서 시행된 표준화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은 모두 상이한 요인구조를 보이고 있다(배성우, 신원식, 2005). 이에 본 연구 자료에 적합한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부하량이 .40 이상이면서 다른 요인에 중복 부하되지 않은 문항들을 선정한 결과 모두 15문항, 3개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제1 요인은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주로 우울하다고 느끼고, 외롭고, 슬프고, 자꾸 눈물이 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우울한 감정’으로 명명하였다. 제2 요인은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신도 다른 사람들만큼은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거나, 미래에 대해 희망차게 평가하는 긍정적인 평가내용이 포함되어 이를 역부호화하여 ‘부정적 평가’로 명명하였다. 제3 요인은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신이 하는 일에 주의집중하기가 어렵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둔화된 행동’으로 명명하였다. 본 우울척도 각 요인의 문항내적 일치도는 우울한

감정이 Chronbach $\alpha = .83$, 부정적 평가 및 둔화된 행동은 각각 $\alpha = .78$, $\alpha = .71$ 로 나타났다.

4)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Rosenberg(1965)의 Self-Esteem Scale을 사용하였다. 원래 이 척도는 10문항으로 구성된 Likert 식 4점 척도로서, 청소년은 평소 자신의 행동과 가장 유사한 정도에 따라 각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4점)에서 ‘거의 그렇지 않다’(1점)까지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부정인 내용을 역점수화 하여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는 단일 측정변인으로 수많은 분야에서 여러 집단을 대상으로 사용되어졌으나 많은 선행 연구(Barber, 1990; Hagborg, 1993; Owens, 1993; Rosenberg, 1979; Tafarodi & Swann, 1995)에서는 이 척도가 단일 차원의 척도가 아니며 두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공유치(communalities)가 .40 이하인 8번 문항을 삭제하고 Scree Plot를 참고하여 2개의 하위요인을 추출하였다. 제 1요인에는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며, 2요인의 예로는 ‘대체로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생각한다’ 등 자신의 능력에 관한 부정적인 문항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1요인은 ‘가치감’으로, 2요인은 무능감의 내용을 역부호화하여 ‘유능감’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각 요인의 신뢰도는 Chronbach $\alpha = .75$ 와 $.86$ 이었다.

3. 자료수집 절차 및 분석

자료수집을 위해, 임의로 선정한 서울과 수도

권 2개의 고등학교와 6개의 대학에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교장의 협조를 얻어 담당교사들이 편리한 시간에 교실에서 집단으로 질문지조사를 실시하여 총 350부(회수율 93%)를 회수하였다. 대학생의 경우는 강의시간 전·후에 질문지를 배부한 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하였으며 2주일 이내에 총 224부(회수율 74.9%)가 회수되었다. 이들 자료 중 일부자료가 미비하거나 양진이 게시지 않는 자료들을 제외하고 고등학생은 총 275부, 대학생은 총 183부의 자료가 연구문제 분석에 사용되었다.

다변량 통계분석기법 적용하기에 앞서 연구모형에 결합분포가 정규분포인지를 확인하였으며 또한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AMOS 7.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Anderson과 Gerbing(1988)의 이론에 근거하여 측정모형의 타당도를 검증한 후, 인과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는 2단계 접근(two-step approach) 방식을 취하였다. 먼저 구조모형에 대한 이론모형과 대안모형의 χ^2 값의 차이와 RMSEA를 고려하여 가장 간명한 모형을 선택하고, <연구문제 1>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인과적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연구문제 2>를 위해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고등학생과 대학생 자료를 나누어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분석

1. 측정모형의 타당성 검증

측정모형 검증을 위해 우선 수집한 자료들이 정규분포성을 가정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다변량(multivariate) 결합분포의 왜도와 첨도의 통계

량은 12.67을 보이고 있었으며, χ^2 의 임계치가 4.53으로 나타나 자료들이 정규분포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¹⁾. 이후,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청소년의 우울성향, 우울, 자아존중감의 구성개념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 값이 92.014($df = 31$), GFI = .964, TLI = .951, CFI = .972, RMSEA = .66(.051 ~ .081)으로 모두 준거기준²⁾을 충족시켜 모형의 적합성이 증명되었다. 또한 표준화된 회귀계수가 .487 ~ .940으로 나타나 그 값이 매우 유의미하였으므로³⁾, C.R(critical ratio) 값도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추정되었다. 따라서 모든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의 구성요소를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표 1> 참조).

이외에도 하나의 잠재변인에 대해 측정변인이 상관관계를 갖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모든 요인에 대하여 잠재변인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와 평균분산 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⁴⁾을 산출하였다.

- 1) 정규분포의 기준은 $df = 2$ 이고 $\alpha = .05$ 일 때 $\chi^2 = 5.99$ 이하를 보이는 경우, 다변량 정규분포를 보인다는 귀무가설(H_0)을 지지함(김계수, 2007).
- 2) 모형의 χ^2 값은 표집의 크기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χ^2 값을 고려하는 동시에 GFI(goodness of fit index)와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fit index)를 고려함. GFI와 TLI, CFI는 그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좋은 적합도를 의미하는데 .9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해석. RMSEA는 .06 이하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모형(close fit)으로 해석되며, .08 이하이면 괜찮은 모형(reasonable fit), .10 이하는 보통모형(mediocre fit), .10 초과는 나쁜 모형(unacceptable fit)으로 받아들여짐(김계수, 2007; 홍세희, 2007; Hu & Bentler, 1999).
- 3) 표준화된 회귀계수(β)가 .40 이상일 때 유의미한 것으로 간주함(송지준, 2009).
- 4) 잠재변인 신뢰도는 .7 이상, 분산추출지수는 .5 이상의 임계치를 보일 때 잠재변인 신뢰성과 수렴타당성

<표 1> 측정모형의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의 요인부하량

(N = 458)

잠재변인	측정변인	B	β	SE	CR
아버지심리통제	분리불안	1.000	.784***		
	성취지향	1.354	.940***	.087	15.479
어머니심리통제	분리불안	1.000	.753***		
	성취지향	1.303	.906***	.091	14.314
우울성향	의존성	1.000	.498***		
	자아비난	1.521	.690***	.154	9.873
우울	우울한 감정	1.000	.487***		
	부정적 평가	1.742	.713***	.176	9.903
	둔화된 행동	1.167	.559***	.104	11.253
자아존중감	가치감	1.000	.848***		
	유능감	1.163	.788***	.064	18.314

***p < .001.

그 결과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청소년의 우울성향, 우울 및 자아존중감의 잠재변인 신뢰도는 .895 ~ .976로, 평균분산 추출값은 .815 ~ .954로 나타나 모든 값들은 일반적인 기준을 충족시켜 각각 잠재변인에 해당하는 측정변인들은 대체로 수렴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한편, 한 잠재변인이 실제로 다른 잠재변인과 얼마나 다른지를 나타내는 판별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결정계수의 크기는 .033 ~ .425로 분산

추출지수보다 모두 작게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2>에서 보듯이 독립변인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매개변인인 청소년의 우울성향, 우울 그리고 종속변인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사이에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였으며, 변인들 간의 방향성이 예측된 방향으로 나타남에 따라 연구모형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연구모형에 대한 구조모형 분석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모형을 탐색하기 위해 이론모형과 대안모형들 사이에 경합을 통해 연구모형을 선택하고,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와 표준화된 경로계수, 인과적 효과분해를 살펴보았다.

1) 연구모형 선택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관계에 관한 모형으로 이론모형

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음(Fornell & Larcker, 1981; 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m, 2006).

$$\text{잠재변인 신뢰도} = \frac{(\sum \text{표준적재치})^2}{[(\sum \text{표준적재치})^2 + (\text{측정오차의 합})]} = 0.7 \text{ 이상}$$

$$\text{평균분산 추출지수} = \frac{(\sum \text{표준적재치})^2}{[(\sum \text{표준적재치})^2 + (\text{측정오차의 합})]} = 0.5 \text{ 이상}$$

5) 판별타당도는 두 잠재변인 간 결정계수(상관계수의 제곱)가 분산추출지수보다 낮으면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Fornell & Larcker, 1981).

<표 2> 잠재변인의 상관관계

(N = 458)

	1	2	3	4	5
1. 아버지 심리적 통제					
2. 어머니 심리적 통제	.608***				
3. 우울성향	.182***	.237***			
4. 우울	.301***	.300***	.537***		
5. 자아존중감	-.258***	-.265***	-.555***	-.652***	

***p < .001.

과 함께 부분매개 모형과 완전매개 모형을 대안 모형으로 하여 각 모형 간의 χ^2 값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표 7>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세 모형 모두 모든 적합도 지수가 기준치를 충족하고 있으며 세 모형 간의 비교에서도 χ^2 값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모수의 수가 적고, 모형의 복잡성을 고려한 RMSEA가 가장 작아 간명한 모형(Raykov & Marcoulides, 1999)으로 나타난 완전매개 모형(C)을 최종적인 연구모형으로 선택하였다.

2) 연구모형의 평가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표 3>에서 보듯이 χ^2 값이 98.241(df = 37), GFI = .961, TLI = .959, CFI

= .972, RMSEA = .60(.046~.075)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이 구조모형이 자료에 적합하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청소년의 우울성향, 우울, 자아존중감에 대한 모수추정치를 살펴본 결과 모든 경로의 계수가 유의확률 .05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표 4>, <그림 4> 참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우울 성향에 대한 경로의 추정치는 각각 .157, .257이었고, 우울성향이 우울에 이르는 추정치는 .973이었으며, 우울이 자아존중감에 이르는 추정치는 -.969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심할수록 청소년은 우울성향을 많이 나타나게 되고, 이를 통해 우울을 느끼면서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표 3> 이론모형과 대안모형의 비교

(N = 458)

모형	모수	χ^2	df	GFI	TLI	CFI	RMSEA (LO90~HI90)	AIC	ECVI
A	33	95.365	33	.962	.953	.972	.064(.049~.080)	161.365	.353
B	31	95.931	35	.962	.957	.972	.062(.047~.077)	157.931	.346
C	29	98.214	37	.961	.959	.972	.060(.046~.075)	156.214	.342
A : B		$\chi^2_{B-A} = .566$				$df_B - df_A = 2$	$p = .753 > p = .05$		
A : C		$\chi^2_{C-A} = 2.849$				$df_C - df_A = 4$	$p = .583 > p = .05$		
B : C		$\chi^2_{C-B} = 2.283$				$df_C - df_B = 2$	$p = .319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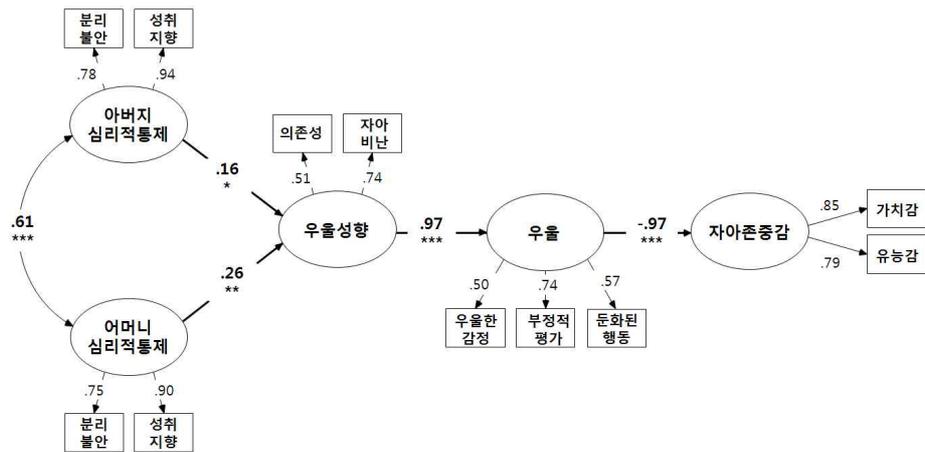
주 : A는 이론모형
 B는 대안모형1 : 부분 매개 모형
 C는 대안모형2 : 완전 매개 모형

<표 4> 연구모형의 변인들 간의 경로계수 추정치

(N = 458)

모수	B	β	S.E	C.R
아버지심리통제 → 우울성향	.129	.157*	.064	2.025
어머니심리통제 → 우울성향	.234	.257**	.074	3.152
우울성향 → 우울	.807	.973***	.104	7.772
우울 → 자아존중감	-1.398	-.969***	.135	-10.386
아버지심리통제 → 분리불안	1.000	.783***		
아버지심리통제 → 성취지향	1.357	.941***	.088	15.427
어머니심리통제 → 분리불안	1.000	.754***		
어머니심리통제 → 성취지향	1.300	.904***	.091	14.259
우울성향 → 의존성	1.000	.510***		
우울성향 → 자아비난	1.586	.738***	.161	9.880
우울 → 우울한 감정	1.000	.503***		
우울 → 부정적 평가	1.738	.735***	.172	10.097
우울 → 둔화된 행동	1.153	.571***	.102	11.287
자아존중감 → 가치감	1.000	.849***		
자아존중감 → 유능감	1.161	.787***	.063	18.307

* $p < .05$. ** $p < .01$. *** $p < .001$.



주 : 오차항 생략.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4> 연구모형의 검증결과

3) 연구모형의 효과성 분해

본 연구에서 선택한 완전매개 모형에 대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청소년의 우울성향, 우울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잠재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자세히 파악하고 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효과성을 분해하였다. 효과성 분해에 제시된 모든 수치는 표준화된 계수이며,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토하기 위해 Sobel

<표 5> 연구모형의 인과적 효과분해

(N = 458)

모수	Sobel	Boostraping		
	Z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아버지 심리적 통제 → 우울성향		.157		.157
어머니 심리적 통제 → 우울성향		.257**		.257**
아버지 심리적 통제 → 우울	1.966*		.153	.153
어머니 심리적 통제 → 우울	2.928**		.250**	.250**
아버지 심리적 통제 → 자아존중감			-.148	-.148
어머니 심리적 통제 → 자아존중감			-.243**	-.243**
우울성향 → 우울		.973*		.973*
우울성향 → 자아존중감	-6.210***		-.943**	-.943**
우울 → 자아존중감		-.969**		-.969**

* $p < .05$. ** $p < .01$. *** $p < .001$

Test⁶⁾와 Boostraping⁷⁾ 방법을 사용하였다.

매개효과 분석 결과, 외생변인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우울성향과 우울을 거쳐 자아존중감에 간접적인 영향($\beta = -.243, p < .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생변인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심할수록 청소년은 우울성향을 많이 하며($\beta = .257, p < .01$), 우울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Z = 2.928, p < .01; \beta = .250, p < .01$). 또한, 청소년의 우울성향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beta = .973, p < .05$), 자

아존중감에는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Z = -6.210, p < .001; \beta = -.943, p < .01$)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청소년의 우울은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으로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beta = -.969, p < .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3. 연구모형의 교차타당성 검증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모형 개발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선택된 연구모형을 일반화하기 위하여 교차타당화과정이 요구된다. 이는 최종적으로 선택된 모형을 새로운 자료에 적용시켜 그 모형의 적합도와 내용을 판단하여 다른 집단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이순목, 2000).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대상을 남학생과 여학생,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나누어 자료의 형태를 새롭게 만든 뒤에 청소년의 성과 연령에 따라 다중집단분석(multiple Group analysis)을 실시하여 개발된 연구모형의 교차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의 성과 연령에 따라 표준적재치 및 공분산이 다르다는 비제약모형(A)을 baseline으로

6) Sobel test에서 분자는 각각 매개효과의 추정치, 분모는 매개효과의 추정치에 대한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나타내며 분모의 S_a 와 S_b 는 각각 추정치 a와 b에 대한 표준오차 값이다. $a = .05$ 수준에서 Z_{at} 값이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음(홍세희, 2007).

$$\text{Sobel test : } Z_{ab} = \frac{ab}{\sqrt{b^2 S_a^2 + a^2 S_b^2}}$$

7) Amos 프로그램에서 간접효과의 유의확률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인 Boostraping은 추정치를 k번 반복 추정하여 분포의 형태를 가정하지 않는 추정치의 경험적 분포를 생성하는 방법이므로 소위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 추정변인이 정규분포를 따를 때 정확한 미지수의 계산이 가능)과 결과가 차이가 있을 수 있음(김계수, 2007).

<표 6> 성에 따른 연구모형의 교차타당성 검증

(N = 458)

모형	모수	χ^2	df	GFI	TLI	CFI	RMSEA (LO90~HI90)	AIC	ECVI
A	60	128.038	72	.952	.961	.975	.041(.029~.053)	248.038	.544
B	54	130.726	78	.951	.966	.976	.039(.027~.050)	238.726	.524
C	47	137.264	85	.948	.969	.976	.037(.025~.048)	231.264	.507
D	22	2322.772	110	.411	.000	.000	.210(.203~.218)	2366.772	5.190
A : B		$\chi^2_{B-A} = 2.689$				$df_B - df_A = 6$		$p = .847 > p = .05$	
A : C		$\chi^2_{C-A} = 9.226$				$df_C - df_A = 13$		$p = .756 > p = .05$	
B : C		$\chi^2_{C-B} = 6.537$				$df_C - df_B = 7$		$p = .479 > p = .05$	

A : 비제약모형(Unconstrained Model)
 B : 측정 제약모형(Constrained Model : Measurement Weights)
 C : 공분산 제약모형(Constrained Model : Structural Covariance)
 D : 포화모형(Independence Model)

<표 7> 연령에 따른 연구모형의 교차타당성 검증

(N = 458)

모형	모수	χ^2	df	GFI	TLI	CFI	RMSEA (LO90~HI90)	AIC	ECVI
A	60	150.298	72	.944	.947	.965	.049(.038~.060)	270.298	.593
B	54	157.492	78	.941	.950	.964	.047(.037~.058)	265.492	.582
C	47	164.545	85	.938	.954	.964	.045(.035~.056)	258.545	.567
D	22	2348.538	110	.411	.000	.000	.211(.204~.219)	2392.538	5.247
A : B		$\chi^2_{B-A} = 7.194$				$df_B - df_A = 6$		$p = .303 > p = .05$	
A : C		$\chi^2_{C-A} = 14.247$				$df_C - df_A = 13$		$p = .357 > p = .05$	
B : C		$\chi^2_{C-B} = 7.053$				$df_C - df_B = 7$		$p = .423 > p = .05$	

A : 비제약모형(Unconstrained Model)
 B : 측정 제약모형(Constrained Model : Measurement Weights)
 C : 공분산 제약모형(Constrained Model : Structural Covariance)
 D : 포화모형(Independence Model)

설정하고, 성이나 연령과 관계없이 표준적재치가 동일하다는 제약을 주어 측정동일성을 비교하는 측정제약모형(B)과 구조공분산까지 동일하다는 제약을 주어 구조동일성을 비교하는 구조공분산 제약모형(C)으로 형태동일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비제약 모형은 측정제약 모형 및 구조공분산 제약 모형과 유의확률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같은 모형으로

밝혀졌다(<표 6>, <표 7> 참조). 즉, 연구모형에서 비제약모형의 회귀계수가 동일하다는 제약 후에도 모형의 적합도는 악화되지 않았으며(성별-A : B → $\Delta\chi^2 = 2.689$; $\Delta df = 6$; $p = .847$, 연령별-A : B → $\Delta\chi^2 = 7.194$; $\Delta df = 6$; $p = .303$), 또한, 측정제약 뿐만 아니라 구조공분산이 동일하다는 구조공분산 제약모형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서도 비제약모형은 제약 이후에도 모형의 적

합도는 악화되지 않았다(성별-A : C → $\Delta\chi^2 = 9.226$; $\Delta df = 13$; $p = .756$, 연령별-A : C → $\Delta\chi^2 = 14.247$; $\Delta df = 13$; $p = .357$). 이들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모형의 측정계수와 공분산을 모두 같다고 제약한 모형(C)의 적합도 지수가 모두 .90 이상(성별- GFI = .948, TLI = .976, CFI = .976, 연령별-GFI = .938, TLI = .954, CFI = .964)이고 RMSEA도 역시 좋은 모형(close fit)을 보이고 있으며(성별- RMSEA = .037(.025 ~ .048), 연령별-RMSEA = .045(.035 ~ .056) AIC와 ECVI도 각각 가장 작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이 모형은 남학생과 여학생, 고등학생과 대학생 모두에게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형임이 입증되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우울이 자아존중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고려하여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우울성향 및 우울을 거쳐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구조적 모형을 설정하고 연구모형의 구조적 관계와 교차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문제의 주요 결과를 요약,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문제 1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성향, 우울, 자아존중감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기에 앞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측정모형의 전반적 적합도 지수들은 모두 기준치에 부합하는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 잠재변인과 측정변인 사이에 이론적 배경의 근거한 논리구조가 확인되었다. 또한,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성도 확보되어 이 연구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청소년의 우울성향, 우울,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모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타당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그 다음 단계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인 우울성향과 우울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선행연구를 근거로 제안한 이론모형과 그에 대한 대안모형으로 부분매개 모형과 완전매개 모형을 비교한 결과 적합도의 지수가 가장 양호하고 간명한 모형인 완전매개 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완전매개 모형의 구조적 관계를 경로계수를 통해 살펴본 결과 예상한 바와 같이 첫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의 우울한 성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울성향이 우울을 거쳐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심할수록 청소년은 성격적으로 우울성향을 많이 갖게 되고, 이를 통해 만성적으로 우울을 느끼면서 자아존중감에 손상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모형의 직·간접 경로를 분석한 결과 외생변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내생변인인 청소년의 우울성향 및 우울, 자아존중감 사이에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즉,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우울성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직접적 경로는 자녀의 정서적 요구인 독립성을 받아들여려고 하지 않거나 간접적인 행동을 하고 소유욕과 과보호행동을 나타내는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를 보이는 경우, 자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매달리고 의존하며 돌보아지기를 갈망하는 의존적 우울성향을 갖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기대수준을 지나치게 높게 갖고 있으며, 자녀가 그 기대에 못 미칠 때 죄의식을 유발하는 성취지향적 심리적 통제를 하는 부모의 자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자아비난적 우울성향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박성연 등(2008)과 Blatt(1974), Sonenes(2006, 2007) 등, Welkowitz 등(1985)의 연구에서 심리적 통제 유형이 우울성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우울성향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의존적이고 자아비난적인 우울성향이 있는 개인은 우울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거나 무기력한 행동을 하는 우울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손보영과 정남운(2006)과 Zuroff 등(1983)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즉, 우울성향으로 인해 우울을 갖게 된 청소년들은 감정적으로 우울, 슬픔, 무망감, 절망감 등을 느끼게 되며 인지적으로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인 평가를 많이 하게 되고 행동과 사고가 느려지고 지연행동을 반복하며 사회적 활동을 회피하게 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청소년의 우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직접적 경로는 우울한 사람들의 경우, 스스로 자신에 대해 낮은 가치감을 느끼며, 인지적으로 왜곡하여 자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게 됨으로써 우울이 낮은 자아존중감의 예측변인임을 강조한 Beck(1976), Fray와 Carlock(1989), Rosenberg(1986)의 연구를 지지한다. 즉, 우울한 감정과 부정적인 평가와 둔화된 행동으로 나타나는 우울은 자신을 무능하고 무가치하게 평가하게 함으로써 자아존중감에 손상을 입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각각 변인들 사이에 직접적인 경로가 선행연구들에 의해 지지가 됨으로써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우울성향과 우울을 통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본 연구에서의 구조모형은 이론적으로 매우 적합한 모형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연구모형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에 비해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가 청

소년에 우울성향에 미치는 경로의 계수가 작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들어 아버지의 양육참여 중요성이 알려지면서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쏟는 아버지들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서 어머니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결과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부모에 대한 이해가 엄부자모(嚴父慈母)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통제적인 양육행동에 대해 어머니의 통제적인 양육행동보다 더 당연하고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기인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미국에 거주하는 아시아 청소년들이 권위적이고 엄한 부모를 훌륭한 부모라고 생각하는 경향으로 인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Chao(1994)의 연구결과에 근거한다. 그러나 또한 Chao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은 적지만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자녀간 대화가 적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김경민, 2010), 아버지와 별로 상호작용을 많이 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경우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가 있을 경우 이를 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이기(Beans, Bush, McKenry, & Wilson, 2003) 때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둘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는 청소년의 우울성향 및 우울을 통해 완전 매개 되었다. 즉,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의 우울성향과 우울을 차례대로 매개하며, 이 영향을 받아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나타냈다. 따라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직접적으로 자아존중감을 저해시키는 것이 아니

라 청소년이 우울한 경험으로 이어져 우울에 취약한 성격특성인 우울성향을 갖게 되며 이러한 직접적인 관계가 장기화되면서 우울상태로 이어져 심각성이 증대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심각한 우울은 자신을 무능력하고 무가치하게 느끼도록 하여 자아존중감을 손상시키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연구모형을 성과 연령별로 적용했을 때에도 안정된 결과를 도출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남학생과 여학생, 고등학생과 대학생 간 동일성 검증을 한 결과,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경로의 측정계수 뿐만 아니라 공분산 구조까지 동일화제약을 가한 후에도 좋은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며 성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는 동일한 모형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을 우울에 취약한 우울성향을 만들고 이로 인해 더 우울을 느끼게 되며 결국 개인의 적응 및 건강한 성격발달과 자아실현에 중요한 요소인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연구모형은 남·여, 고등학생과 남학생에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모두에게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형임이 입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청소년의 우울성향 및 우울, 자아존중감 간에 직접·간접적인 경로는 남녀, 고등학생과 대학생에 관계없이 동일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우울한 경험을 많이 하게하여 우울에 취약한 성격 즉, 우울성향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해 증상적인 우울로 이어지고 이는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본 연구결과는 횡단적 자료에 근거한 것이며, 연구대상도 역시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인과적인 관계로 해석하거나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본 연구에 수집된 모든 자료는 청소년의 지각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사회적 바람직성이나 주관성이 개입되었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본 연구 결과는 경쟁과 입시중심의 사회분위기,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가치관이 혼재한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정태연, 2010; 한태석; 2009).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상급학교 진학과 성적을 중시하는 사회분위기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부모 함께 지내는 특수성 때문에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많이 받고 그로 인해 우울이나 자아존중감 손상을 많이 경험하는지, 아니면 문화적 배경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지 대해서는 단정하기가 힘들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학문적, 실용적 의의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심리적 통제가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우울성향과 우울이 매개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그리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한 한편, 이를 통해 자아존중감 발달에 관한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하였다. 둘째,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중요해지면서 자녀의 양육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참여하지만, 서구의 연구(Collins, & Russell, 1991; Flouri & Buchanan, 2003; Minton & Pasley, 1996; Soenens, & Vansteenkiste, 2007; Soenens, et al., 2006)와는 달리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 역할에 대한 우리의 문화적 특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및 관련 변인들 간의 구

조모형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지도방향을 시사함으로써 자아존중감에 문제가 있는 청소년에 대한 치료 및 상담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앞으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다양성이나 측정도구의 다양성을 통해 본 연구결과를 재확인하는 한편, 종단적인 연구설계를 통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인 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국가간 또는 문화간 비교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가 보편적인지 문화 특수적인지를 파악하는 연구도 흥미로울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경민(2010). 부부갈등,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남녀 청소년의 친구관계 질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계수(2007). **NEW AMOS 16.0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
- 김소연(2008). 미술매체를 이용한 집단 상담이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순홍(2007). 한국 청소년의 사회심리와 일탈행위. 한국사회조사연구소.
- 김연희·박경자(2001).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및 귀인 성향과 아동의 자아 존중감의 관계. **아동학회지**, 22(2), 49-64.
- 김원경·권희경·전제아(2001). 부모 양육 행동 및 아동의 심리적 제반 변인이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경로 분석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3), 87-105.
- 박성연·이은경(2009).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구성요소의 타당성 연구: 분리불안 심리적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아동학회지**, 30(2), 211-229.
- 박성연·이은경·송주현·Soenens, B. (2008). 부모의 심리적 통제유형이 청소년의 의존심, 자아비난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5), 65-78.
- 배성우·신원식(2005). CES-D척도의 요인구조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방법의 적용. **보건과 사회과학**, 18, 165-190.
- 손보영·정남운(2006). 자기 비판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서 나타나는 대인관계 패턴: CCRT 방법을 통한 질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1), 21-45.
- 송지준(2009). **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AMOS 통계 분석방법**. 파주: 21세기사.
- 연합뉴스, 2007. 10. 8.
- 이순목(2000). **요인분석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 정태연(2010). 한국사회의 집단주의적 성격에 대한 역사·문화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3), 53-76.
- 한규석(2009). **사회심리학의 이해(3판)**. 서울: 학지사.
- 홍세희(2007). **구조방정식 모형의 이론과 응용**.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Barber, B. K. (1990). Marital quality, parental behaviours, and adolescent self-esteem. In: Barber, B. K. and Rollins, B. C., Editors, 1990.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 3296-3319.
- Barber, B. K. (2002). *Intrusive parenting*.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arber, B. K., & Harmon, E. L. (2002). Violating the sel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 and adolescents. In B. K. Barber (Ed.), *Intrusive parenting :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arber, B. K., Olsen, J. E., & Shagle, S. C. (1994).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ontrol and youth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5*, 1120-1136.
- Bean, R. A., Barber, B. K., & Crane, D. R. (2006). Parental support, behavioral control, and psychological control among African American youth : The relationship to academic grades, delinquency, and depression. *Journal of Family, 27*, 1335-1355.
- Bean, R. A., Bush, K. R., McKenry P. C., & Wilson, S. M. (2003). The Impact of Parental Support, Behavioral Control, and Psychological Control on the Academic Achievement and Self-esteem of African American and European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8* (5), 523-541.
- Beck, A. T. (1976). *Cognitive therapy and emotional disorders*. New York :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Blatt, S. J. (1974). Levels of object representation in anaclitic and introjective depression. *Psychoanalytic Study of child, 29*, 107-154.
- Blatt, S. J. (2004). *Experiences of depression : Theoretical, clinical and research perspectives*.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latt, S. J., D'Afflitti, J. P., & Quinlan, D. M. (1976). Experiences of depression in normal young adul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5*, 383-389.
- Blatt, S. J., & Homann, E. (1992). Parent-child interaction in the etiology of depress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12*, 47-91.
- Burns, D. (1980). The perfectionist's script for self-defeat. *Psychology Today*, November, 34-52.
- Chao, R. (1994). Beyond parental control and authoritarian parenting style : understanding Chinese parenting through the cultural notion of training. *Child Development, 65*, 1111-1119.
- Charles, W., & Patricia, K. (2006).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Boston : McGraw-Hill.
- Collins, W., A., & Russell, G. (1991). Mother-child and father-child relationships in middle childhood and adolescence : A developmental analysis. *Developmental Review, 11*(2), 99-136.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 Freeman and Company.
- DeHart, T., Pelham, B. W., & Tennen, H. (2006). What lies beneath : Parenting style and implicit self-esteem.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2*, 1-17.
- Erikson, E. H. (1968). *Identity : Youth and crisis*. New York : Norton.
- Flouri, E., & Buchanan., A. The Role of Father Involvement and Mother Involvement in Adolescents' Psychological Well being.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33*(3), 399-406.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 Algebra and Statistic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3), 382-388.
- Fray, D., & Carlock, C. J. (1989). Parental behaviour and adolescent self-esteem.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461-465.
- Hagborg, W. J. (1993) The Rosenberg Self-Esteem Scale and Harter's Self-perception Profile for adolescents : A concurrent validity study. *Psychology in Schools, 30*, 132-136.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 (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 (6th ed.).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 Prentice Hall.
- Hammen, C., Ellicott, A., Gitlin, M., & Jamison, K.

- (1989). Sociotropy/autonomy and vulnerability to specific life events in patients with unipolar depression and bipolar disorde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8*, 154-160.
- Harter, S., & Whitesell, N. R. (1996). Multiple Pathways to Self Reported Depression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8*, 761-777.
- Hewitt, P. L., & Dyck, D. G. (1986). Perfectionism, stress, and vulnerability to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0*, 137-142.
- Hokanson, J. E., & Butler, A. C. (1992). A cluster analysis of depressed college students' social behavio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273-280.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 Kanfer, F. H., & Hagerman, S. (1981). The role of self-regulation. In L. P. Rehm (Eds.), *Behavior therapy for depression : Pres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New York : Academic Press.
- Kernis, M. H., Grannemann, B. D., & Mathis, L. C. (1991). Stability of self-esteem as a moderator of the relation between level of self-esteem and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81-84.
- Lewinsohn, P. M., Gotlib, I. H., & Seeley, J. R. (1997). Depression-related psychosocial variables : Are they specific to depression in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 365-375.
- Milevsky, A., Schlechter, M., Netter, S., & Keehn, D. (2007). Maternal and paternal parenting styles in adolescents : Associations with self-esteem,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6*, 39-47.
- Minton, C., & Pasely, K. (1996). Fathers' Parenting Role Identity and Father Involvement A Comparison of Nondivorced and Divorced, Nonresident Fathers. *Journal of Family Issues, 17*(1), 26-45.
- Mruk, C. J. (2006). *Self-esteem research, theory, and practice : Toward a positive psychology of self-esteem (3th ed.)*, New York : Springer.
- Owens, T. J. (1993). Accentuating the positive and the negative : Rethinking the use of self-esteem, self-deprecation, and self-confidence.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6*, 288-299.
- Oyserman, D., Coon, H., & Kemmelmeier, M. (2002). Rethinking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 Evaluation of theoretical assumptions and meta-analyses. *Psychological Bulletin, 128*, 3-72.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Raykov, T., & Marcoulides, G. A. (1999). On Desirability of Parsimony in Structural Equation Model Selec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292-300.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 basic Books.
- Rosenberg, M. (1986). Self-concept from middle childhood through adolescence. In J. Suls & A. G., Greenwald (Eds.),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the self, 3*. Hillsdale, NJ : Erlbaum.
- Soenens, B., & Vansteenkiste, M. (2007). Distinguishing among types of psychological control : Separation-anxious versus achievement-oriented psychological control. In A. Assor (Chir), *Disentangling the construct of parental control : Conceptual and measurement issues*. Symposium conduc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Child Development (SRCD), Boston.
- Soenens, B., Vansteenkiste, M., Duriez, B., & Goossens, L. (2006). In search of sources of psychologically

- controlling parenting : the role of parental separation anxiety and parental maladaptive perfectionism.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6, 539-559.
- Stolz, H. E., Barber, B. K., & Olsen, J. A. (2005). Disentangling fathering and mothering : An assessment of relative importa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7(4), 1076-1092.
- Tafarodi, R. W., & Swann, W. B., Jr. (1995). Self-liking and self-competence as dimensions of global self-esteem : Initial validation of a measu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5, 322-342.
- Trzesniewski, K. H., Donnellan, M. B., Moffitt, T. E., Robins, R. W., Poulton, R., & Caspi, A. (2006). Low self-esteem during adolescence predicts poor health, criminal behavior, and limited economic prospects during adult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42, 381-390.
- Welkowitz, J., Lish, J. D., & Bond, R. N. (1985). The Depressive Experiences Questionnaire : Revision and valid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89-94.
- Zuroff, D. C., Moskowitz, D. S., Wielgus, M. S., Powers, T. A., & Franko, D. L. (1983). Construct validation of the dependency and self-criticism scales of the Depressive Experiences Questionnaire. *Journal of Research on Personality*, 17, 226-241.

2010년 8월 31일 투고, 2010년 11월 9일 수정
2010년 11월 11일 채택